

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9. 1. 29.

금 융 위 원 회

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-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'18.12월말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명으로, 전체 근로자의 약 24.4%(무급가족종사자 포함)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 -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 수와 비중 모두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,
 - * 자영업자 비중(% , '17년) : (한국) 25.4 (EU) 15.5 (일) 10.4 (미) 6.3
 -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, 국내 자영업은 경쟁심화, 비용부담 가중, 경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
 - * '16년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률 및 폐업률은 각각 18.2%, 13.9%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중에 1명이 폐업하는 상황
-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, 자영업자 소득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5차례의 자영업 종합 대책(관계부처 합동)을 발표하였으며,
 - *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('17.7.16일),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지원 보완대책('18.1.18일), 저소득층 일자리·소득지원 대책('18.7.18일)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대책('18.8.22일), 자영업 성장·혁신 종합대책('18.12.20일)
 - 지난해 말에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으로 「자영업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」을 마련('18.12.24일 발표)하였습니다.
-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※ 「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」 주요 내용

- ① (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)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관리 및 특정업종 편중 현상 완화
- ② (맞춤형 지원 강화) 자영업자 전용 저금리 금융상품을 마련하고, 금융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
- ③ (채무조정·재기지원 활성화) 맞춤형 채무조정제도, '채무조정+재기자금지원' 패키지 도입으로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
- ④ (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) 주요 공공정보, 카드매출액·가맹점 관련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

2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

1) 개인사업자대출 관리

- ☐ 우선,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,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.
- ☐ '15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고,
* 업권별 증가율(전년동기 대비, '18.9말, %) : (상호금융)38.0 (저축은행)37.6 (은행)9.6
 -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·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☐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·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☐ 따라서,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내역 등 세부 정보를 살펴보고,
 -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원인이 무엇인지, 잠재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·파악해야 할 것입니다.

< 당부사항 >

-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업권별·업종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.
 -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미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봅니다.
-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·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,
 - 최근의 부동산·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·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“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”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 - 가게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,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.
- 부동산·임대업대출은 앞으로도 ①가게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, ②은퇴 연령층(베이비붐세대)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.
 - 가게 주담대와 부동산·임대업대출 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 하여 풍선효과 소지를 차단하고,
 -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(19.1분기)해야 할 것입니다.
 - 아울러, 부동산·임대업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의 경우, 해당 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·관리(19.1분기중)해야 할 것입니다.
- 아울러, 금융회사별로 부동산·임대업 평균 LTV에 차이가 있어 내부 리스크관리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 - 개별사 차원에서도 부동산·임대업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고, 필요하다면 감독기관의 점검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

2)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

- 1.31일 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
①초저금리 특별대출(1.8조원) 및 ②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(2천억원)
상품이 동시에 출시됩니다.

※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.31일 발표 예정

< 당부사항 >

-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 - 특히, 상품출시와 함께 고객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원활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.
 - 영업점 및 고객센터 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대출상품에 대해 완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.
 - 또한, 상품 출시여부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- 실제 대출상품 취급상황이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.
 - 기업은행은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지원이 총공급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.

3)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확대

- 은행권 사회공헌자금(500억원)을 활용하여 총 6천억원 규모*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입니다.

* 자영업자 우대보증 4,500억원,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,200억원,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(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)

-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특히, 재창업자의 창업 성공확률이 높음에도 그동안은 창업 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재창업 여건이 불리하였으나,
 -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*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보증비율 90~100%(일반 보증 85%), 보증요율 0.3~1%p 인하(일반 보증 평균 1.5%)

< 당부사항 >

- 각 보증기관에서는 관련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2월중에는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)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

- 그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양적 측면에서 증가해 왔으나,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습니다.
- 자영업자의 '지속가능한 자활'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< 당부사항 >

-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연계 컨설팅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,
-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,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

- 또한,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현 수준* 보다 확대 실시하는 한편,

* '17년 3,315건, '18년 4,937건 → '19년 5,000건 이상

-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.

5)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

-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,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,

-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, 담보·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- 이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공정보*와 카드사매출액·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CB사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,

*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(예 : 사업자등록번호 등)가 포함

-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.

< 당부사항 >

- 주요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·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주시고,

-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.

4

마무리 말씀

- 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☐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
 -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에서도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- ☐ 감사합니다.